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KPCA,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NY)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Tel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http://www.kpcanypts.org>

학장 유제도 박사 / 학감 이기백 박사 / 총무처장 임선순 목사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2016년 가을학기 신입(편입)생 모집요강

KPCA,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NY)

2016년 가을학기 전형일 : 2016년 9월 1일

본 신학대학은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로서 1978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38년간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 교수 등 훌륭한 영적지도자를 양성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학대학입니다. 본 대학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한 분은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PCUSA 교단에서도 목회와 선교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 군목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고, 한국에 가실 경우에는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주안교회 등이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 이명하여 목회할 수 있습니다. 본교와 Blanton-Peale Institute와 상호교육협정을 체결함으로 I-20Form을 발행하여 면학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집학과	신학사 (B.Th.) 교역학석사 (M.Div.) 신학석사 (Th.M.)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신앙고백서, 이력서, 서약서 각 1통씩, 추천서 (B.Th는 담임목사, M.Div는 노회장), 전형료 \$50. * 서류는 본교 홈페이지(http://www.kpcanypts.org)에서 다운로드
입학전형일시	2016년 9월 1일(목) 오전 10시 본교 사무실 주소: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전형과목	성경, 영어, 일반상식, 면접.
개강일	2016년 9월 6일(화) 오전 9시 본교 강의실 주소 :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강의시간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50분)
원서교부	본교 사무실 :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전 화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 http://www.kpcanypts.org
상담문의	학 감 : 이기백 교수 732-266-9013 총무처장 : 임선순 교수 917-754-5220, 718-921-3277

“작은집”



학장 유재도 박사

왜 신학교의 건물이 그렇게 필요하냐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홈레스피플 이라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냐고요. 집이 없는 홈레스에게는 아마 작은 집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에게 작은 집이라도 있어야 가족이 모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거주지가 있어야 직장도 잡고, 자녀가 학교도 가고, 편지도 받아볼 수 있고, 손님도 올 수 있고, 친구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남의 건물에 세를 들어서 사는 것을 경험해 본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작은 것이라도 자체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교회에 세를 들어서 15년 동안 미국교회당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의 매주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40년의 역사를 가진 뉴욕장로회신학대학이 자체 신학교 건물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작은 집이라도 한 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면을 통하여 모든 교회들, 모든 목사님들, 여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건물을 위한 기금의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꼭 신학대학의 자체 건물을 구입하는 일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신학대학의 자체 건물이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의 건물이 필요한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적어보았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학대학은 도서관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책방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책을 인터넷을 통하여서 주문합니다. 일반 서적은 물론이고 신앙서적 또는 신학서적을 구입하는 일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대학은 신학서적들을 적어도 도서관에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신학 서적들을 도서관에 와서 찾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성도들도 찾아와서 원하는 책들을 언제나 읽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둘째, 안정된 행정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신학생들의 신학교육의 행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신학교는 영구적으로 갖고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모든 성적표와 졸업장과 그 밖의 인적 사항의 기록을 신학교는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사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속하게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40년간의 모든 동문들의 기록은 컴퓨터화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위하여서 신학교는 학장이 되는 사람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에서 교육할 수 있는 안정된 건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에 대하여 저는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많지만 아쉬운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회적으로 각 교회들에게 어떤 연속적인 신학적인

방향이나, 사회적 중요한 이슈에 대한 교단의 입장이나,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회 산하의 교회나 각자 목회자가 알아서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교단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을 해결해주어야 할 기관은 교단 내에 있는 신학대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신학대학이 어떤 교회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다면 다양한 모임과 연구나 행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를 들어서 살고 있다면 아마 겨우 강의 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눈치를 보아가면서 어떤 교회의 시설을 임시로 강의 장소로 쓰는 것 정도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신학대학은 안정되게 예배와 강의, 훈련 그리고 기도를 잘 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신학대학교들은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60퍼센트라고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목회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교의 입학 후보생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왜 신학교 건물이 필요하냐고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 봅니다. 우리는 큰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예배하고, 강의하고 훈련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작은 집을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찾아서 일하십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다 바라보고 신학과 교회의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ISIS로 인한 테러의 문제, 모슬렘권을 향한 선교의 문제, 북한을 향한 전도, 무너져가는 유럽의 교회들을 향한 선교, 전 세계의 수천만 명의 난민들을 향한 대책과 기도, 급격하게 퍼지는 동성애의 물결, 미국에서 급속하게 많아지는 스페니쉬 사람들을 향한 전도, 흑백 간의 갈등, 다종교주의로 물들어가는 미국 주류교단들, 무서운 이단들의 침투 등등. 이런 상황 속에서 신학교는 더욱 예배와 교육과 훈련과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건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인터넷 통신강의를 철저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고도의 여러 가지 통신망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반학문 뿐만 아니라, 신학 강의도 벌써 통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강의와 신학 훈련을 인터넷이나 통신으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질이 떨어지고, 경건의 훈련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이나 통신강의는 더욱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런 것은 장소와 건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좋은 강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를 향하여 여러 가지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앙적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일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교육을 위하여서도 이런 일들은 빨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교단과 노회와 교회들을 위한 센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단원들이 모임과 의식주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있을 때에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건물은 이제 선교적인 마음으로 빨리 마련하여야 합니다. 신학교 건물이 중심이 되어서 총회나 노회나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모이고, 만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며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교회 주의나 개교회적인 자세를 극복하여야 합니다. 몇몇 큰 교회들은 우월감을 갖고 개교회적으로 일을 합니다. 자기 교회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합니다. 심지어 성서대학 그리고 신학교 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열등감 내지는 위축감을 갖고서 역시 여러 가지 일들을 개교회적으로 몸부림을 치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해외한인장로회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려면 공동적으로 연합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일곱째, 경건하고, 복음적이고,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위해서 신학교 건물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교단들은 지금 대부분 자유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있지만, 구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참되게 진리를 찾고 성경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국의 교단들이나 그런 것을 따라가는 신학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작지만 밝은 빛을 발하는 우리 신학교가 굳게 세워진다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2017년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새로운 의미에서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바르게 신학을 가르치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 위해 신학교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세나 삼세들이 신학 공부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만약에 신학 훈련을 원할 때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진 신학교를 찾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사나 시설이나 신학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에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학교로 오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민 일세들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힘들고 열악한 상황하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홉째, 신학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신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신학교로 찾아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학교로 찾아올 수는 없지만, 신학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평신도들로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들이 제공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신학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신학교는 질적으로 잘 준비하여 집중적인 교육으로 그런 곳에 교수들을 파송하고 그런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면서 신학 교육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중적인 신학교육과 소수의 신학생들의 공동체(15명-20명)는 신앙교육적인 면에서 오히려 많은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의 신학교의 방식이나 큰 건물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공부를 하던 과거에는 신학교가 매우 작았는데, 지금은 한국을 보면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모두 웅장한 시설과 건물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교통과 과학과 통신의 발달로 과거와는 달라져 있습니다. 신학교 건물이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그렇게 크거나 웅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신학교는 작아도 알차게 효과적으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들이며 또는 그들의 후손들로서 믿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로서 한국을 떠나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아가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세상을 섬길 하나님의 일군들을 양육하는 장소와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과 학교와 공동 모임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수 천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세상에서 우뚝 서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미국 동부에 우리 뉴욕장로회신학대학교의 건물을 함께 세워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날 줄로 믿습니다. ♠

“에파타”



이기백 학감

외국에서 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바램이 있다면 각자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언어의 소통이 아닐까 생각한다. 잘 들을 수 있고 잘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에게 중요하다. 때로 잘 듣지 못해서,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살 때도 있고 심지어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다.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표현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잘 알아듣고 이해를 했을까? 아니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다. 그러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말하는 게 두렵고 말을 듣는 게 힘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때로 중요한 모임에 갈 때는 가기 전에 기도를 한다. 주님 오늘도 참 힘든 시간이 될 텐데 오늘 나의 귀를 열어 주셔서 잘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모임에 갈 때마다 드리는 나의 기도이다.

이란주 씨라는 분의 <말해요 찬드라> 라는 책에 네팔에서 한국에 온 '찬드라 구룡'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는 게 사무실이나 하이 소사이어티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섬유공장에서 일을 한다. 어느 날 라면 가게에 가서 라면을 한 그릇 먹고 돈을 내려고 보니 지갑이 없는 것이다. 그는 지갑을 놓고 온 것이다. 그래서 주인에게 얼른 가서 돈을 가지고 와서 갚겠다고 말을 하지만 라면 가게 주인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된 것이다. 경찰을 불렀고, 라면 한 그릇에 경찰에 붙들려갔고, 경찰도 못 알아듣으니 그를 정신병원에 보냈다. 6년 4개월을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동안 온갖 약을 다 먹으면서 고통을 감수했다. 가족들과 소통이 끊어진 채 정신 병원에서 6년 4개월을 보내는 것이다. 그녀가 이런 과정을 겪은 후 나오면서 마지막에 부르짖었던 한 마디 '나도 맞으면 아프고 슬프면 눈물이 납니다.' 이게 소통의 단절이 가져온 이민자들의 아픔이요 이민자들의 고통이다. 잘 듣는다는 것, 잘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큰 축복이다.

여기에 귀가 막히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이 있다. 귀가 막혔으니 말을 잘 들을 수가 없고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제발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손가락을 귀에다 대시고 침을 뱉어 그 혀에 대시고 만지시고 기도를 하신다. 그러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이제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사람이 말을 하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말이 부족했고 본인도 답답했고 또 듣는 사람들도 답답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귀에다 대시고 기도하시니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그가 지니고 있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것이다. 단절되어 있던 그래서 함께 소통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꿔 버렸다.

우리 인간의 비극의 출발점이 '달함'에 있고 '달음'에 있다. 달히고 달으니까 귀가 달히고 마음이 달히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내가 막아버리는 것이다. 스스로 귀를 막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 하

나님의 음성이 없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있었는데 그 음성이 내 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들어오고 싶는데 귀를 막으니, 닫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사람의 영성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 한다.

요한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열면’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들어가고 싶으시다. 자기 백성 안에 들어가고 싶으시다.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싶으시다. 그런데 내가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주님은 쫓겨났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긴다. 왜? 예수님이 있으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음성을 차단해 버렸다. 있으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교회는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교회로 변해 간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편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을 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니 고민이 된다. 그러니 부담스럽다. 이렇게 스스로 귀를 막고 살게 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로 표현한다. 하나님을 알 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하는 것들이 허망하여 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한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악을 낳았고 나중에는 그 악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켰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그 귀를 닫아버렸는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인간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닫혀 버리니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참된 진리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들을 수 없으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실과 진리가 아니고 거짓과 불평과 원망이다. 그래서 인간은 거짓을 거짓으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진실로 알고 산다. 막힌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막힌 세상임을 알지 못할 때, 단지 육신의 귀가 막힌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가 막혔을 때, 그 안을 들어오는 것은 어눌함이고, 답답함이다. 거짓이요 어두움이다. 이런 꼭 막힌 세상, 이 단절된 세상을 소통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바로 알고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바로 소통하게 하셨다. 그 길을 놓으셨다. 세상과 세상이 서로 믿음 안에서 소통하게 하셨다. 사람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소통하게 하셨다. 그 소통은 바로 내 안에서, 나에게서부터 출발한다. 주께서 소통하게 하시는 그 소통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내 안에서부터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귀가 열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징조가 하나 있다. 그것은 닫혀졌던 내 자신이 열리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열리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열리기 시작한다. 나를 감싸고 있던 것들,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약점과 잘못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 두렵지 않게 된다. 오히려 영적으로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길선

주 목사! 그분이 목사로 안수받기 전에 어느 날 새벽기도시간에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 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 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잘 그를 테니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100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 부인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인들 앞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닿았을 때 그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 날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었고, 자기 영혼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적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그 순간에 그분이 누렸던 것이다.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 부흥운동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막힌 담이 무너짐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됐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곧 사람과 사람사이의 소통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들어가면 내 속에 닫혀 있던 많은 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기 시작한다. 그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알게 된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내 마음이 꼭 닫혀 있었다. 이 사람에게도 닫혀 있고 저 사람에게도 닫혀 있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닫혀진 마음이 다 열어지는데 내가 가진 자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게 된다. 이것이 열린 자들의 행복이다.

마음이 참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슨 말을 듣던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힘이다. 무슨 말을 듣던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방송에서 고부간의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한국에서 그 이름을 대면 다 알 만 한사람이다. 그분이 패널로 참석을 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그분의 가정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가정이다. 자식들이 한국에서 일류대학을 나왔고 경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런데 아들이 여자를 만나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를 보니까 지적인 수준에 있어서 많이 처지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가문으로 봐도, 경제적인 면도, 지적인 면도... 시 어머니가 못마땅했다. 그래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사는데 어느 순간 화가 날 일이 생겼다.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뱉어 냈는데 '야! 너 IQ 몇이야~!' 그랬다는 것이다. 이건 굉장한 모독이요 상처이다. 그렇잖아도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 사는데.... '야, 너 IQ 몇이야' 그 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순간에 오~~, 이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말 해놓고는 식은땀이 촉악 나더라는 것이다. 어떻게 수습을 하나 속으로 막 그러는데....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그래도 저 두 자리 숫자는 되잖아요.' 당신 아들이 140이고 150이면 나는 그래도 100은 되지 않느냐 그 말이다. 며느리가 그 말을 하는데 며느리 앞에서 절을 하고 싶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사부인이 딸 교육은 잘 시켰다. 모난 곳 없이 잘 교육시켰다.' 참 잘 자랐다. 구김살 없이 자랐다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못 배우고 없어도 열린 마음으로 자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고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열린 마음이 소통을 이루게 만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관계에 소통에도 변화가 온다는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새로운 신분이 우리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사는 사람으로 만든다. 세상기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두렵다는 얘기다. 세상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속에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길 힘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찾아가는 것이다.

세상에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고 자랑하고 허세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또 허세 앞에 비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비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자기 자신이 열려있지 못하고 자신이 닫혀있는 까닭이다.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싹트고 분노와 비굴함이 싹튼다. 그러면 네가 즐거워 할 때 내가 함께 즐거워 할 수 없고 네가 울 때 함께 울 수가 없다. 그러나 소통이 되면 예수로 인하여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리면 내 마음도 같이 열리면서 이렇게 말 할 수 있다. '나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합니다. 나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면서 '참~ 좋습니다.' 함께 좋아해 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고, '참 힘드네요.' 그러면서 옆에 가서 함께 울어 줄 수 있는.... 우리가 살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이지 않을까~. 그것이 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마음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신학교를 향한 한 가지 소원”



임선순 총무처장

어릴 때 눈이 어두우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편지를 대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었다. 그것은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서” 라는 표현이었다. 이제 내가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정말로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른 것 같다. 어떤 분이 우리의 나이와 시간의 속도가 비례한다고 하던 말씀이 생각난다. 10대에는 시간이 매시간 10km로 지나가는데 70대에는 70km가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똑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내면적으로 체험된 시간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수궁이 간다. 그는 고백록에서 “도대체 시간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묻는 이가 없으면 아는듯 하다가도 막상 묻는 이에게 설명을 하려하면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 속에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즉,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의 현재는 직관이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올해가 벌써 70이 된다. 이제 목회에서도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 아쉬운 마음도 들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 했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연수는 누린 것 같다. 하긴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65세부터 80세까지가 중년이요, 81세부터 100세까지가 노년이고, 100세가 넘어야 장수한다고 하니 그 나이 기준으로 보면 아직 중년의 나이를 이제 막 넘어선 나이니 아직은 한창 때인지도 모르겠다.

되돌아보면 1993년 늦게 목사로 임직을 받고 만 23년간 포도원장로교회에서만 목회를 했다. 이제 목회가 무엇인가, 설교는 이렇게 해야 겠구나 알만하니까 그만두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그중에서 신학교에서 보직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친 시간이 20년, 학교에 다닌 기간까지를 합치면 25년간이란 세월을 학교와 관계를 맺어온 셈이다. 이제 그동안 사랑하고 열정을 쏟아왔던 우리 신학교도 떠날 때가 가까와 온다.

우리 신학교를 향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도서관과 기숙사를 가진 자체 건물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일이다. 아니 요즘같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모든 신학교들이 입학생들이 없어 존폐의 위기가운데 있는데 신학교 건물을 마련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험 같은 생각도 든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민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김종훈 교수

(한인)이민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누구나 관심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확실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주제의 방향을 목회학 차원으로, 제가 이민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경험하는 범위 안에서 이민교회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1982년 1월에 뉴욕에 이민을 온 후 35년동안 뉴욕에서 살고 있다. 이민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 목회, 이민교회에서 모든 부서를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 있기에 그것을 기초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이민교회의 과거현재미래를 구분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사회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민교회의 과거현재미래는 이민자들의 관심에 따라서 변화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민교회의 과거현재미래를 이민자의 관심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이민교회의 과거(1903-1965년)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주 부터 미국이민이 시작된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분들은 미국에 오셨어도 언제나 고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있었다. 그러니 고국을 향한 정치적인 이슈가 이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치하에서는 해외 독립운동본부가 되었고 해방이후에 조국이 공산화되어지는 위협에서 조국을 지키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금년 1월 한국과 미국의 중간에 있는 하와이에서 한국 통합총회 관계자와 선교협의를 하고 시간이 잠시났을때 하와이 초기교회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교회안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서있는 것을 보았고, 그곳이 바로 민족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그곳에 살고 있는 후예들도 모두 이러한 정치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의 후예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결국 이민자들의 관심이라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민교회를 섬기는가에 따라 이민교회의 특성이 지어지는데, 과거의 이민교회의 특성은 하와이를 중심으로 보면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민교회의 현재(1965-2015년)

이민교회의 현재를 1965-2015년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어떤 학적인 근거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저의 목회적인 관점에서 나누어 보았다. 1965년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인종간 이민쿼터제를 폐지했다. 백인이 얼마, 아시아인이 얼마, 중남미 얼마라는 이민 쿼터제가 폐지되고 이후 1970년대부터 많은 한국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오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간호사들이 많이 왔다. 그리고 간호사를 아내를 둔 목사들이 많이 왔다. 그분들은 한인이민교회 초창기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박희소 목사 와 안창의 목사 등이 그렇다.

1980-90년대는 한인이민의 절정기였다. 저도 1982년, 80년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민오셨고, 1990년대까지 20년 동안 한인들의 이민의 물결이 피크를 이루었다. 그러다 2천년대부터 한인이민이 많이 감소가 되었다. 2015년까지 이민온 분들은 초창기 하와이 이민자들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것은 이때 이민자들의 최대관심은 '어메리칸 드림'이었다. 한국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더 좋은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에서의 어메리칸 드림은 당시 이민자들의 대부분의 관심이었다.

당시 한인 이민자들의 주된 업종을 보면 야채과일가게, 생선가게, 잡화점, 문방구, 봉제공장, 네일가게, 세탁소, 철물점, 의류가게, 델리가게, 꽃가게 등이었다. 그때는 누가 공항에 마중나오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을 결정되던 때였다. 만약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분이 공항에 마중 나오면 그분을 따라 봉제공장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당시 이민사회의 모습이었다. 한인 이민자들은 12시간 이상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니 이민교회의 성격은 당연히 이런분들의 이민의 관심과 같이 가게 되었다. 한인 이민자들은 고생을 하면서도 고생의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 한인이민교회는 이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저도 이민자 공항픽업, 아이들의 학교등록, 소셜시큐리티 카드 발행받는 것을 도왔다. 당시에는 사회봉사기관이 많이 없었기에 연로하신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도 도왔다. 이사를 하게 되면 교회 청년들이 이사를 도왔고, 하여간 교회가 한인 이민자들의 모든 삶의 기초였다. 처음 이민와서 집을 찾고, 직장을 얻는 것 까지 모든 이민생활의 센터의 역할을 교회가 했다. 당시 한인이민교회는 영적인 중심지, 정신적인 중심지, 그리고 이민생활의 중심지였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민은 나무를 뽑아 다른데 옮겨 심는 상황인데, 옮겨 심으니 얼마나 뿌리를 내리기 힘들겠는가.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민와서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어렵기에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신앙의 핵심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위로 받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민사회에 정착하는데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고달픈 이민생활속에서 다른 어떤 생각을 하는 여유가 없던 때였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결속력도 있고 한인교회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지만, 미국 주류사회와의 관계 그들의 흐름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기도 했다.

그래서 주류사회로 부터 고립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한흑 갈등'이었다. 1982년부터 87년까지 뉴욕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했다. 이민자로서 일을 하면서 공부했기에 과정을 마치는데 5년이 걸렸다. 제가 있었던 학교에는 3분의 2가 흑인학생이었고, 나머지는 스페니쉬 한인 백인들이 섞여있었다.

어느날 클래스에서 한흑인 신학생들간에 재미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브루클린이나 브롱스 등 흑인지역에서 한인들이 야채가게를 하는데 흑인들이 가게에서 자꾸 훔친다. 그러니 우리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미국와서 땀을 흘리고 이민생활의 터전을 닦아가는 사람에게 훔치고 때로는 총을 들고 돈을 빼앗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했다. 우리는 훔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고, 십계명에도 어긋난다고 이야기를 했다.

흑인들의 입장은 달랐다. 흑인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돈을 지역 밖으로 가지고 나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지역에 가서 집을 산다는 것. 결국은 흑인 지역에서 돈이 빠져나가기에 점점더 지역이 게토화가 되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한인들은 열심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 흑인들을 점점 더 못살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에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훔치는 것은 사회정의라고 이야기하면서 클래스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아직도 그때 뜨거웠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나중에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한흑 신학생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저희 한인 신학생들은 한인교회로 돌아가서 운동을 펼쳤다. 아무래도 흑인들은 교회중심이기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 커뮤니티 안에 있는 목사에게 추천을 받기로 하자고 했다. 그러면 훔쳐가거나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흑인 커뮤니티의 흑인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주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절기때에는 과일 등을 기부하자고 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서서히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작은 역할을 한 기억이 난다. 처치애브뉴에 폭동사건도 잘 알고 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민와서 어렵고 힘든 생활속에서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이민의 꿈도 이루는데만 관심이 있었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보는 눈이 없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민사회의 새로운 현상

이민사회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났다. 상권의 대형화로 인한 소상공인 쇠퇴가 일어났다. 80-90년대만 해도 샘스클럽, 비제이, 코스코, 타켓, 스테플 등은 도심 외곽지대에만 있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작은 자본

으로도 쉽게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스테플이 들어와 한인들이 하던 스테서너리들은 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홈디퍼가 들어와 한인운영 하드웨어점들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웬만하면 비제이나 코스코에서 다 커버를 한다. 이전에는 작은 옷가게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조금만 벗어나면 대형 백화점에서 빅세일을 하고, 아웃렛몰이 주변에 다 있다. 한인들이 잡고 있었던 비즈니스 업종들이 다 손을 놓기 시작했다. 생선가게도 거의 하지 않고, 야채가게도 손을 놓고 있다. 맨하탄 봉제공장은 처음 이민온 분들이 서니사이드 우드사이드 엘머스트에서 살면서 서브웨이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나중에는 인건비때문에 공장을 중국이나 중남미로 이전하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가발과 가방 비즈니스가 상당히 성행했는데 점점 뉴저지로 옮기거나 문을 닫고 해서 아직도 브로드웨이에 남아있는 한인상권은 미미한 상태이다. 점차적으로 한인 이민자들이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직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민의 정체 및 역이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1988년 올림픽 이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돌파하면서 점차 생활이 안정이 되어갔다. 미국 한인이민자들을 보는 한국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미국에 왔다고 하면 전에는 부러운 투로 보았는데, 90년도 이후에는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불쌍하게 보며 미국 거지 왔냐고 한다. 그러다보니 2010년 이후 한국을 방문하여 그런 대우를 받은 한인 이민자들은 왜 미국에 살아야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며 정체감이 상당히 흔들리게 되었다. 이민의 정체현상이 벌써 5년여 전부터 생기고 있으며, 오히려 역이민이 모습을 보인다. 제가 총회 일을 맡으면서 세계 많은 곳을 다니고 있다. 캐나다에도 중남미에도 남미에도 더 이상 이민이 안온다고 한다. 미 동부에서 부터 서부까지 이민이 들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이민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은 열심히 이민생활하면서 교회중심으로 열심히 봉사하던 분들이 은퇴내지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일교회도 개척 23년차인데 초기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노령화되어 지금은 건강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노령화 현상과 함께 2세들이 '조용한 탈출(Silent Exodus)'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다. 고등부까지 열심히 교회에 다니던 학생들이 대학과 대학원에 가면서 85% 이상이 자기가 자란 모교회를 떠난다. 말없이 조용히 떠난다고 해서 '조용한 탈출'이라고 부른다. 그것도 관심의 차이이다. 이민 1세들의 관심은 이민교회가 이민생활의 중심이었다. 교회가 신앙의 중심 그리고 생활의 중심이었다. 2세들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자란 2세들은 언어도 문화도 부족하지 않다. 1세와 2세들의 관심이 다르다. 여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관심이 다른 것이다. 1세들이 추구하면서 세워오는 교회의 방향과 이 땅에서 자라나서 미국문화와 미국생활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2세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결국은 그들을 떠나게 한다고 보고 싶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오는 개인주의, 물량주의, 성적인 자유에 대한 유혹은 사실은 한인 2세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백인도 마찬가지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예일교회를 개척하고 5-6년이 되었을 때 베이사이드에 있는 유대회당으로 이전했다. 다들 유대인하면 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 교회에서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면서 랍비를 초청해서 유대인 자녀교육의 성공의 노하우에 대해 듣고 싶었다. 교육의 기술과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유대회당 랍비는 폴란드에서 나치의 학대를 피해 앨리스 아일랜드에 도착하여 이민자로서 어려운 일들을 열심히 했으며,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회당을 찾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자신들이 처음 이민왔을 때의 모습과 같다고 말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이

되면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고 옛날에 자신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했다는 것.

결론은 지금처럼 하면 자녀교육은 성공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랍비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실망했다.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받는 자녀를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아이비리그 교수가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기대했는데 단지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지금처럼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러면 자녀교육 성공한다고 말했다.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 사실 유대회당도 우리 크리스찬들에 빌려줄 이유가 없다. 렌트를 받기 위해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이유는 유대인 젊은 층들이 다 세상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이민사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민사회의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랍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며,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1세의 관심 그리고 2세의 관심은 다르다. 그리고 이민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관심이 다르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민사회의 관심에 따른 교회형태 변화

이민사회의 관심에 따른 교회형태 변화를 본다. 지금 크게 나누어보면 1세 중심의 교회가 있고, 1세의 신앙적인 토대위에 2세들의 관심을 품는 영어목회가 있고, 2세들이 다인종교회에 참석하거나 메가처치 안의 한인공동체 교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본다. 특별히 팀 켈리 목사가 있는 리더머처치에는 많은 한인 2세들이 있으며, 한인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런 큰 메가처치 안에 한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다니는 자녀들도 많이 있고, 결국은 다인종 사회속에서 다인종 교회로 가야하지 않나 해서 다인종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도 있다. 여하간 3가지 형태로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된다.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과거의 이민교회는 고국에 대한 향수로 고국의 정치에 대한 후원하는 단체였다면, 1965-2015년까지 이민교회는 어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이민자의 관심에 주목하며 1970년대에 시작해서 1980-90년대에 피크를 이루었다가 2000년-2010년 하강 포물선을 이루는 이민의 물결을 보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한인이민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이제 한인이민교회의 미래를 살펴보겠다.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할 것인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 이민교회의 미래...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알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성육신 모델의 신앙전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제가 이민사회의 현상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어찌면 위기이다. 더이상 이민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열심히 일하던 분은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세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다. 누가 보아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럴때일수록 바른 성경적인 신앙으로 회복이 필요할 때이다. 오히려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면 성경적인 리더십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저는 성육신 모델에서 신앙전수의 어떤 모델을 발견하게 된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나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것에서 제가 뽑은 두 단어가 '디센터링(De-centering)'과 '리센터링(Re-centering)'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은 분이심에도 그 자리를 비우신다(디센터링). 그 다음에 비운 자리에 무엇으로 채우셨는가(리센터링) 하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이 과거에는 정치적인 관심이 있었고, 현재는 어메리칸 드림에 관심이 있었다면 먼저 이 관심을 일단 비우자(디센터링).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관심으로 다시 채우자(리센터링)는 것이다.

한미교회 신앙의 디센터링과 리센터링

한국교회에 기도 헌신 열정같은 좋은 전통이 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좋은 점이 있다. 미국교회 신앙에도 좋은 전통들도 있다. 합리성이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합리적인 것에 순응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아는 개인주의적이며 기복주의적인 것 보다는 미국사회에서 발견되어지는 신앙의 장점은 사회에 대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신앙에는 좋은 점들과 나쁜 점들이 있다. 나쁜 점들,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디센터링하고, 성경적인 것 한국적인 신앙생활에서 좋은 점과 미국적인 신앙생활에서 좋은 점을 성경안에서 리센터링하자는 것이다.

바른 성경적 신앙으로의 회복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일교회에도 EM이 있다. EM에게 가능하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한다. EM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와서 예배를 드리기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경향의 사람도 온 것을 보았다. 예일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노선이 있다. 그래서 EM 지도자들을 불러 신앙적인 노선에 합당하지 않게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우리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라고 했다.

신앙의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 신앙고백이 하나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유치부 부터 어른들까지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했다. 신앙적으로 교회 전체를 통일을 좀 시켜야겠다고 해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교역자들과 함께 설교를 하게 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가 있던 주일, 유치부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겨요"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하고 물으니,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되요"라고 대답했다. 밥을 먹으면서 부흥회를 한 것이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한인이민교회는 언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신앙고백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어메리칸 드림을 킹덤 드림으로

교회의 본질부터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교회의 바람직한 관심의 방향은 이제는 어메리칸 드림을 넘어서 킹덤 드림을 실현하는 것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어메리칸 드림은 자기중심이지만, 킹덤 드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조금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비록 내가 여기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성취를 하지 못해도, 킹덤 드림은 조금이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오늘 여기에 서있는 것이다.

이제는 개인적인 관심이 그리고 어메리칸 드림이 주가 아니라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위기상황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오히려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본질에 대한 관심의 회복이 바로 이민교회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래서 어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대하는 것이다. 개인주의화가 되어질때는 교회간의 경쟁도 있을 수 있고, 숫적인 성장을 위해 여러가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킹덤 드림이 될때는 교회들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연합의 대상 그리고 협력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꿈을 이루는 그러한 한인이민교회들이 될 것이다.

디아스포라 미셔널 처치

우리가 흠어져 있는 것은 디아스포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흠어주셨다. 175개국에 750만의 한인들이 흠어진 것으로 알고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한국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민을 가면 일본사람들은 회사, 중국사람들은 식당, 한국사람들은 교회를 먼저 세운다. 한국사람이 있는 곳은 세계 어디든지 교회가 있다. 볼리비아 해발 4200미터에도 한인교회가 두 개가 있는 것을 보았다. 특별한 민족이다.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CS 루이스가 기억에 남는 말을 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지 않으시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가 있어도 교회를 통해 그리고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하십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중함이 있다. 여기에 교회의 꿈이 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흠어져 있지만 흠어져 있는 그곳이 디아스포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다.

이 시대의 경향인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상대성이다. 절대성이 없기에 모두가 절대적인 가치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 해석을 한다.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 성경의 권위를 잃어가면서 교회의 권위 또한 잃어간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질수록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흠어진 씨앗처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흠어주신줄 믿는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서 복음적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미셔널 처치를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인이민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나가 되어 선교하는 것이다. 2천년부터 예일교회가 선교할때 추구한 것이 있다. 그 당시만해도 선교는 선교이

고, 교육은 교육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았다. 선교와 교육은 같이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단기선교를 가면 학생들과 어른들을 거의 반반씩 팀으로 구성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어른과 아이들을 한 그룹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스들은 항상 유스끼리만 있고 어른들은 어른끼리만 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누고 디센터링과 리센터링 이야기를 언제든지 한다. 어른들은 내가 어른인데 하는 것을 디센터링하여 비워야 하며,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아이들에게도 어른들과 그룹을 나누면 어떻게 1세들의 신앙을 배우고 전수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설명한다. 따로있으면 그 수준만큼만 배우게 되는 것이다. 어른들과 유스가 함께 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며 나누면 아이들은 어른에게 신앙의 성숙을 배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서 신앙의 순수함을 배운다. 그리고 하루일과를 마치고 저녁에는 그날 하루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깨달은 것을 나눈다. 그때에도 서로에게 놀라며 배운다.

의도적으로 15년이상을 그렇게 해 왔다. 감사한 것은 지금은 많이 익숙해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서로 만나면 격려해주고 반가워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고, 선교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미셔널 처치의 지체의식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 주일에는 매년 어린이 찬양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스페니쉬로 노래를 해서 놀랐다. 가만히 보니 부모님과 함께 간 선교지에서 불렀던 노래를 아이들이 부른 것이다. 매달 첫 토요일은 다인종이 모여있는 맨하탄 전도를 나간다. 전도를 나갈때 매달 권사, 유스, 어린이들이 나누어 같이 전도를 나간다. 그냥 전도지를 주면 안받지만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면 잘 받는다. 어릴때부터 미셔널 처치를 몸에 배도록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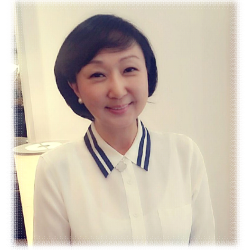
한인이민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다

언어때문에 문화때문에 갈라지는 것도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이민교회의 미래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이민교회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될것이라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없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점점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복음의 절대성을 상대화하고 있는 시대, 교회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어린아이로 부터 어른까지 미셔널처치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포맷은 빌립보서 2장의 디센터링과 리센터링이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중에 성경적이지 못한것은 비우고(디센터링),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시대일수록 돌아와야 한다는 것으로 다시 채우는(리센터링) 작업을 하고 있다.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청년들이 함께 미션을 통해 하나가 되고 있으며, 교회의 이벤트가 있으면 이러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민교회의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나누었다. 처음 말씀드린 것 처럼 주제 방향은 저의 이민목회적인 실천적인 경험적인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민자의 관심에 따라 과거현재미래를 나누었다. 과거가 정치적인 관심이었고, 현재가 어메리칸 드림이 관심이라면, 앞으로 미래는 킹덤 드림이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강의의 핵심이다.♠

“신학교 건물을 구입하면서”



정선희 간사

신학교를 입학하면 신학을 배우고 성서학을 배우고 교육학을 배우는 줄은 알았습니다. 물론 30과목도 넘게 공부하고 더 나아가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논문도 썼습니다. 그러나 뉴욕장신을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무한한 지혜와 존엄과 또한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건물도 없이 40여년을 이리저리 옮기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까지 한 모교 뉴욕장신입니다. 더 크고 번듯하고 풍요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어 놓을 것이 없는 듯 보이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모본의 삶으로 묵묵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신 스승님들.... 조용히 흐르는 물이 깊은 것 처럼 말없는 말로 가르치며 깊이 있는 삶으로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분들이 우리 신학교의 대들보이고 버팀목이고 디딤돌 이십니다. 부드러운 카라스마와 학문의 정수로 우리에게 사역자의 기본을 전해주시신 유재도 학장님. 온유와 사랑의 사람을 한사람 떠 올리라면 근사한 울림의 멋진 목소리와 함께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기백 학감님. 육신의 가족의 정을 뛰어넘을 만큼 우리 후배들을 사랑하시고 뉴욕장신 졸업생들의 멘토로서 좁지만 바르고 단단한 길을 닦아 주신 자랑스런 선배 임선순 총무처장님. 귀한 스승님들 덕분에 우리 뉴욕장신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모교를 더욱 사랑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배움의 길을 묵묵히 따라 갈수 있었습니다. 한사람의 바른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지도 신문이나 책이 아닌 우리의 바로 눈앞에서 삶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선한 뜻과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앞에는 호수와 공원의 산책길이 있는 반듯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뉴욕 장신을 주님 뜻 안에서 세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뉴욕장신대 소식

뉴욕장신대 제3회 학술세미나 성료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제3회 학술세미나가 5월 1일(주일) 오후 5시 신학대학(원)에서 세계적인 신약학 교수인 김세운 교수(풀러신학교)와 본교 교수이며 총회장인 김종훈 교수를 초청해 제3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먼저 김세운 교수(풀러신학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했으며 이어 본교 김종훈 교수(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가 "이민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한인 이민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제언했다. 이민교회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은 없다. 하지

만 이민의 중단과 역이민속에 한인이민

교회의 물리적인 환경은 최악으로 달리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에게 매달렸던 이민신앙의 선배처럼 위기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29장이 많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뉴욕장신 학술세미나'는 국내외의 저명한 교수와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교파를 초월하여 미 동북부지역의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다.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지역교회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받는 가운데 학교의 하나의 전통과 년중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제33회 학위수여 및 졸업예배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33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가 6월 12일(주일) 오후 6시에 뉴저지 하베스트교회에서 열렸다.

학감 이기백 박사가 인도한 예배는 뉴욕노회장 김성은 목사의 기도, 전 뉴저지노회장 조인목 목사의 성경봉독, 한무리교회 성가대 찬양, 전 학장 김창길 박사의 설교, 학감의 학사보고, 학장 유재도 박사, 이사장 박맹준 목사의 학위 수여식, 선물 증정, 학장의 상패 증정, 학장 권면, 총무처장 임선순 목사의 연혁보고, 동북노회장 오영관 목사의 격려사, 동문회장 김석충

목사, 필라노회장 조성수 목사의 축사, 홍재광 학우의 답사, 총무처장의 광고, 교가제창, 이사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임선순 교수는 20년 근속을 감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전 학장이자 전 총회장인 김창길 박사는 빌 1:20-21 을 본문으로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세상에서 실천하기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장 유재도 박사는 "세상은 넓고 선교를 갈 곳은 무궁무진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고 권면 했으며, 동북노회장 오영관 목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기준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많다.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사역할 때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사를 했으며, 동문회장 김석충 목사는 "우리가 거룩한 부름 받은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에 걸쳐 노력하기 위함이다. 참된 영성을 추구하고,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으며, 필라델피아 노회장 조성수 목사는 "말이 훈련 된 사람, 나눠 줄 은혜가 많은 사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졸업자 명단은 ▶교역학 석사(M.Div.): 오영숙, 이미숙, 최은주, 홍재광, ▶신학사: 이효심, 김선자 등과 같고, 오영숙 졸업생이 최우수 성적상과 공로상을, 이미숙 졸업생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전한 홍재광 졸업생은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시작할 때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결정이 큰 기쁨과 목상의 시간을 가져다 준 것에 감사한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지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원) 후원금 요청 공문

수신: 뉴욕노회,동북노회,뉴저지노회,필라노회

발신: 뉴욕 장로회신학대학(원) 이사장

제목: 뉴욕 장로회신학대학(원) 건물구입을 위한 후원금 요청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섬기시는 노회와 지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원)은 총회 직영신학교로 동부를 대표하는 신학대학교이며 1978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많은 주의 종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그러나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원)은 총회 직영 신학교로 오랜 전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건물을 갖지 못한 채 지금까지 교회를 빌려 학업을 해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학교의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학장과 이사장, 동문, 재학생들이 오랜 숙원이었던 학교 자체 건물구입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그 기도에 응답하여주셨습니다. 동문 중에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 학교 건물구입을 위한 시드머니로 10만불을 이사회에 기탁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계속 기도하던 중 마침 뉴저지에 아주 좋은 조건에 같은 부지 안에 2개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정규수업을 할 수 있는 단층 건물과 도서관 및 학생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층 건물 총 2개의 동을 포함하여 주차장까지 준비되어 있어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매물 가격이 53만불입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기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고하였으며 건물구입을 위한 사전 조사와 행정절차를 밟도록 결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와 동문들은 빠른 시일 안에 후원회를 조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학교에서는 10월 중에 뉴욕장신 건물 구입을 위한 후원을 받기위해 한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국면에 접어든 이민 교회와 목회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녹록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후원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서도 소명 받은 자들을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잘 가르치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장신대학(원)이 오늘날까지 걸어온 전통과 역사를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하여 볼 때 더욱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동부지역의 4개 노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 노회는 뉴욕장신대학(원) 건물 구입을 위한 후원 모집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며 각 노회별로 지교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명실공히 뉴욕장신대학(원)이 미 동부를 대표하는 해외한인 장로회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으로 더 큰 발전과 도약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2016년 7월 20일

뉴욕 장로회신학대학(원) 이 사 장 박맹준 목사
기록이사 주영광 목사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교수소개



학장 유재도 교수
(교육신학)



학감 이기백 교수
(실천신학)



총무처장 임선순 교수
(역사신학)



김건철 교수
(선교신학)



김경희 교수
(신약신학)



김삼천 교수
(구약신학)



김유태 교수
(신약신학)



김윤권 교수
(구약신학)



김중훈 교수
(실천신학)



김희건 교수
(조직신학)



민경수 교수
(실천신학)



소기범 교수
(영성신학)



송병기 교수
(실천신학)



전광성 교수
(구약신학)



백성철 교수
(아비장 분교)

김건철 교수	Boston University (Th.D. can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Th.M.) 영남대(B.A.)
김경희 교수	장로회신학대학원(Th.D., Th.M., M.Div.) 이화여자대학(M.A.) 서울대(B.A.)
김삼천 교수	Canada Christian College(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김유태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 (M.Div.) 연세대 (B.A.)
김윤권 교수	장로회신학대학원(Th.D cand. M.Div.) 연세대(Th.M. B.A.)
김중훈 교수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D. Min.)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M.Div.) 계명대 (B.A.)
김희건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서울대(B.A.)
민경수 교수	Assemblies of God Theological Seminary(D.Min., M.Div.) 서울대(M.A., B.A.)
소기범 교수	Chicago Theological Seminary(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송병기 교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연세대(B.Th.)
유재도 교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Th.M) New Brunswick Seminary(M.Div.) 장신대 (B.Th.)
이기백 교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계명대(B.A.)
임선순 교수	뉴욕장로회신학대원 (Th.M., M.Div.) 연세행정대학원(M.P.A), 성균관대 (B.A.)
전광성 교수	영국 University of St. Andrew(Ph.D.) New Brunswick Seminary(M.Div.) 연세대(B.A.)

“뉴욕 장신 뉴스레터” 발행인 : 학장 유재도 / 편집장: 학감 이기백 / 편집차장 : 총무처장 임선순
* 뉴욕 장신 뉴스레터는 일년에 4번 발행됩니다.